

2026년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법률 실무 특강

미수금 회수 및 채권관리 실무

2026. 5. 28.

법무법인 연

변호사 권오승

오늘 강의 구성

1부

1

미수금이란
무엇인가?

개념 이해
발생 원인
소멸시효

2부

2

미수금
예방하기

신용조사
계약서 작성
담보·보증인

3부

3

단계별
회수 실무

내용증명
분할상환 합의
미수금 관리

4부

4

법적 조치
(최후 수단)

가압류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5부

5

실전 사례
& Q&A

실전 사례 6선
핵심 체크리스트
Q&A



PART 1

미수금이란 무엇인가?

개념 이해 · 발생 상황 · 방치의 위험성

미수금(未收金) =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

💡 농업 현장 예시

- 🌾 쌀 100포대 납품 → 대금 500만 원 미수령
- 🥬 채소 납품 → 거래처 연락 갑자기 두절
- 💰 선급금을 줬는데 납품이 안 됨
- 🐄 축산물 납품 → 품질 핑계로 지급 거부

⚖️ 법률 용어로는?

채권(債權) = 법률 용어로 미수금

채권자(債權者) = 나 (돈 받을 권리)

채무자(債務者) = 거래처 (돈 줄 의무)

💡 이 강의에서는 '미수금 = 채권' 같은 의미로 사용

1부 | 농업 현장에서 미수금이 자주 생기는 상황

외상거래

물건을 먼저 주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한 경우
→ 가장 흔한 미수금 발생 원인

선급금 미정산

미리 돈을 줬는데 농산물이 납품되지 않은 경우
→ 역방향 미수금

거래처 부도

거래처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 경우
→ 가장 피해가 큰 유형

대금 분쟁

품질 문제 등으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 품질 문제 여부의 증거 문제

어떤 상황이든 미수금은 '즉시' 관리를 시작할 필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짐

1부 | 미수금을 방치하면? — 소멸시효(消滅時效)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제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3년

농업인에게
가장 중요!

일반 민사 채권

10년

개인 간
금전 거래

판결 확정 채권

10년

소송에서
이긴 후

상거래 채권

5년

일부 특수
거래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 상거래 채권은 3년 — 농산물 대금, 비료·농자재 대금 등
- 시효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법적 조치 시작 권장

PART 2

미수금 예방하기

계약서 · 신용조사 · 담보 · 보증인

2부 | 거래 전 상대방 신용조사 — 첫 단추가 중요

"처음 거래하는 상대라면 반드시 확인 필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실제 사업자인지, 업종·주소 확인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즉시 무료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 상태, 대표자명, 설립연도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 보유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 이미 담보가 많으면 위험 신호!



휴·폐업 여부 조회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 상태 조회
→ 폐업 사업자에게 납품하면 회수 거의 불가!

💡 실무 팁 : 첫 거래는 소액으로 시작 → 대금 회수 확인 → 거래 규모 확대

2부 | 계약서 작성 — 가장 강력한 예방책

" 모든 계약의 기본 "

①

당사자 정보

판매자·구매자 이름, 사업자번호, 주소

②

물품 내용

품목, 수량, 단가, 총액 명시

③

납품 조건

납품 일자, 장소, 검수 방법

④

대금 지급 조건

지급 기한,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

⑤

연체이자

기한 내 미지급 시 이자율 (예: 연 12%)

⑥

분쟁 해결

관할 법원 지정 (보통 공급자 주소지)

2부 | 외상거래약정서 — 농업 현장 필수 계약서

농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외상거래약정서'

① 외상 한도액

최대 허용 외상 금액 명시
예) 최대 1,000만 원까지만 외상 허용
→ 한도 초과 시 납품 거절 가능

② 외상 기간

결제 기한 명확히 설정
예)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제
→ 기한 지나면 연체이자 발생

③ 연체 이자율

미지급 시 이자 부과 기준
예) 연 12% 또는 법정이자율
→ 심리적 압박 + 실질적 보상

④ 담보·보증인

큰 거래는 담보 요구
예)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예) 연대보증인 서명 확보

⑤ 미수금 처리

발생 시 처리 절차 명시
예) 발생 즉시 전화·문자 통보
예) 7일 내 미납 시 내용증명

⑥ 계약 해지 조건

거래 중단 기준 명시
예) 2회 연속 연체 시 해지
→ 피해 확대 방지

💡 거래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 필요

근저당권이란?

거래처 부동산에 내 채권을 담보로 등록해두는 것

- ✓ 거래처가 돈을 안 갚으면 부동산을 경매로 팔아서 받을 수 있음
- ✓ 거래처가 몰래 재산 빼돌리기 불가
- ✓ 단,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음

설정 방법

- ① 거래처 동의 필요
- ② 등기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 ③ 등기비용: 채권액의 약 0.2%

 채권액보다 20~30% 높게 설정!

보증인 입보

일반 보증

거래처에
먼저 청구

거래처가 못 갚을
때만 보증인에게
청구 가능

✓ 연대보증

거래처 OR
보증인 선택!

누구에게든
바로 청구
가능 → 유리!

상법 제57조 제2항: 상거래에서 보증인은 연대보증인으로 간주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보증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 보증 기간·한도 명시 필수
- 보증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징구

PART 3

미수금 단계별 회수 실무

내용증명 · 분할상환 · 상계 · 관리 대장

3부 | 미수금 발생 시 단계별 대응 흐름



⚡ 미수금 발생 즉시 해야 할 4가지

- ✓ 정확한 미수금 금액 파악 (원금 + 이자)
- ✓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 증거 서류 확보
- ✓ 상대방 주소·연락처·재산 현황 파악
- ✓ 소멸시효 기산일 확인

3부 | 증빙 서류 관리

" 모든 소송은 증거가 전부 "



계약서·약정서

★★★★★

거래의 시작점
없으면 모든 게 어려워짐



거래명세서·납품확인서

★★★★★

납품 사실 증명
거래처 서명 필수!



세금계산서·영수증

★★★★☆

거래 금액과 날짜 증명
발행 즉시 보관



문자·카카오톡

★★★★☆

대화 내용 캡처 보관
금액, 변제의사 메시지 중요!



입출금 내역

★★★★☆

통장 거래내역 출력 보관
금액·날짜 확인용



내용증명 사본

★★★★☆

발송 사실 증명
우체국 보관본 + 수령확인

3부 | 내용증명 — 공식 독촉의 시작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공식 문서. '내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식 증명**



소멸시효 중단

발송 후 6개월간
시효 진행 정지



심리적 압박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 경고



증거 효력

나중에 소송 시
증거로 활용

내용증명 작성 예시

수신: 000 (주소: 000) 발신: 000 (주소: 000)

제목: 미수금 지급 청구

본인은 귀하와 2000년 0월 0일 체결한 농산물 외상거래약정에 따라 농산물을 납품하였으나, 대금 000만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위 금액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금 계좌: 00은행 000-000-000000 (예금주: 000)

3부 | 분할상환 합의 & 상계(相計) 활용

분할상환 합의서

합의서에 넣을 내용

- 총 미수금 금액 인정
- 분할 상환 일정 (예: 매월 ○일 ○○만 원)
- 연체 시 즉시 전액 청구 조항
- 쌍방 서명·날인

핵심 효과

합의서 = 채무 승인

→ 소멸시효가 그 날부터 새로 시작

상계(相計) 활용

상계란?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으면 빼고 정산하는 것

내가 받을 돈 : **500만 원**

내가 줄 돈 : **200만 원**

상계 후 : **300만 원** 

상계 활용 조건

-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가 있을 것
- 상계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
- 문자·내용증명으로 상계 의사 표시 권장

判) 대리점 계약에서 미수금과 수수료를 상계처리한 사례

3부 | 미수금 관리 대장 — 체계적 관리의 시작

미수금 관리 대장은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6263 판결)

거래처	발생일	금액	독촉일	회수일	잔액	비고
○○농장	2025.3.1	300만원	2025.4.1	-	300만원	내용증명 발송
△△유통	2025.2.1	150만원	2025.3.1	2025.3.15	0	완납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마트	2025.1.5	500만원	2025.2.5	-	500만원	가압류 신청 예정



매주 확인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미수금 목록 업데이트



디지털 관리

엑셀 또는 스마트폰 메모
→ 날짜별 정리 필수



증거 첨부

관련 계약서·문자 캡처를
파일로 함께 보관



시효 알림

소멸시효 만료 3개월 전
달력에 알림 설정

PART 4

법적 조치 — 최후의 수단

민사·형사 차이 · 소멸시효 · 가압류 ·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 특수상황

4부 | 민사(民事)와 형사(刑事)의 차이 — 비법조인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핵심 :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전혀 다른 목적임

구분	민사(돈 받기)	형사(처벌)
목적	돈을 받아내는 것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
주체	내가 직접 소송 제기	검사가 기소
결과	판결 → 강제집행	벌금·징역
미수금 회수	직접 연결	직접 연결 안 됨

예외 — 사기죄(형사)가 될 수 있는 경우

처음부터 값을 의사 없이 속여서 물건을 가져갔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

단, 사기죄로 처벌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

4부 | 소멸시효(消滅時效) —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소멸시효 =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법적으로 사라지는 제도 (민법 제168조)

채권 종류	시효	근거 조문	중요도
농산물·상품 대금 (상인 간 거래)	3년	민법 제163조 제6호	★★★★★
일반 상거래 채권	5년	상법 제64조	★★★★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민법 제165조	★★★

판례가 말하는 핵심 주의사항

판례 1 개별 거래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거래 종료일이 아니라 개별 거래가 발생한 날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 오래된 거래분부터 먼저 시효소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8. 선고 2021가단69144)

판례 2 새 주문만으로는 채무 승인이 아닙니다

새로 물건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존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거래가 계속된다고 안심 x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4. 1. 26. 선고 2023가단10831)

4부 | 소멸시효를 멈추는 3가지 방법 (민법 제168조)

시효 중단 효과: 중단 전 진행된 기간 전부 소멸 → 중단 사유 종료 후 새 시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 (민법 제178조 제1항)

① 청구 (소송·지급명령·내용증명 등)

- 소송 제기 → 판결 확정까지 중단
- 지급명령 신청 → 확정 시 10년으로 새로 시작
- 내용증명 발송 → 6개월간 시효 정지 효력
- 재판상 청구는 가장 강력한 중단 수단

② 압류·가압류 (재산 동결)

- 가압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중단 상태
- 단, 시효가 이미 지난 후의 가압류는 효력 없음
- 가압류 후 반드시 본안소송 등 후속조치 필요
- 민법 제175조 — 취소 시 중단 효력 소멸

③ 채무 승인 (채무자가 빚을 인정)

- "나중에 갚겠다" 문자·카톡 메시지
- 분할상환 합의서 서명
- 일부 변제 (조금이라도 갚으면 전체 승인)
- 외상잔액확인서 서명 — 정기적으로 받아둘 필요

실무팁: 채무자로부터 "갚겠다"는 문자 하나만 받아도 시효가 새로 시작. 증거로 반드시 보관

4부 | 법적 조치 단계별 흐름 – 한눈에 보기



4부 | STEP 1 — 가압류(假押留): 상대방 재산 먼저 묶어두기

가압류 = 재산 도망 방지

소송은 1년 이상 소요. 그 사이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숨기면 판결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 불가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

가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가압류 집행보전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시효 중단 상태가 유지됩니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3. 6. 15. 선고 2022가단5337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1가단2603 판결 등)

주의사항 2가지

주의 1. 시효가 지난 후 가압류는 소용없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가압류도 시효 중단 효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209411)

주의 2. 가압류 후 반드시 본안 소송을 해야 함

가압류가 취소되면 시효 중단 효력도 없어짐

(민법 제175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나79468
판결)

4부 | 가압류 대상별 신청 방법 — 4가지 유형

부동산 가압류

- 신청 법원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 필요 서류 : 신청서, 채권증명(계약서·명세서), 등기부등본
- 담보 공탁 : 청구금액의 약 10~20%
- 효과 : 등기부에 가압류 기재 → 상대방 처분 불가

예금채권 가압류

- 신청 법원 : 채무자 주소지 또는 은행 본점 소재지
- 필요 서류 : 신청서, 채권증명 (은행명·지점명 기재 필요)
- 담보 공탁 : 청구금액의 약 10~20%
- 효과 : 계좌 동결 → 상대방 출금 불가 (가장 빠른 방법)

자동차·농기계 가압류

- 신청 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
- 필요 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 담보 공탁 : 청구금액의 약 10~20%
- 효과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 처분 불가

매출채권(제3채무자) 가압류

- 예: 상대방이 마트에서 받을 납품대금
- 신청 법원 : 제3채무자(마트) 소재지 관할 법원
- 효과 : 마트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동결
- 장점 : 상대방 통장에 돈이 없어도 활용 가능

4부 | STEP 2 — 지급명령: 빠르고 저렴한 법적 조치

지급명령 = 정식 재판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 갚아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제도 (민사소송법 제462조)

장점

- 인지대가 소송의 1/10 (비용 절감)
- 빠름 — 2~4주 내 결정
- 서면 심리만으로 진행
- 확정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 확정 후 소멸시효 10년으로 새로 시작

단점 / 한계

- 상대방 이의 제기 시 정식 소송으로 전환
- 상대방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함
- 다툼이 있는 사건에는 부적합
- 상대방이 이의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지급명령 신청 절차

① 관할 법원 민사 신청과 방문 또는 전자소송 접수



② 신청서 작성
채권자·채무자 인적 사항,
청구금액·원인, 증거 첨부



③ 인지대 납부
(소송 인지대의 1/10)



④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



⑤ 2주내이의없으면 확정→강제집행 가능
이의 시 → 소송 전환

4부 | STEP 3 — 민사소송 : 소액사건 vs 일반소송 + 증거 관리

소액사건심판 (3,000만 원 이하)

- 농업 현장 미수금 분쟁 대부분이 해당
- 1회 변론으로 판결 가능 — 빠름
- 절차 간소화 / 변호사 없이도 가능
-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 조사 가능
- 법원 민원실에서 소장 작성 도움

일반 민사소송 (3,000만 원 초과)

- 여러 차례 변론 기일 진행
- 증거 제출·증인 신문 등 복잡한 절차
- 변호사 선임 강력 권장
- 1심 → 항소심 → 상고심 (3심제)
-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증거 관리 — 소송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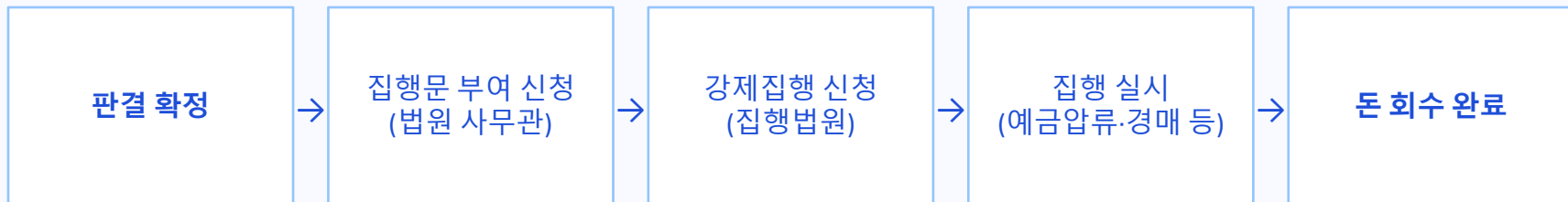
증거 종류	중요도	보관 방법	비고
계약서·외상거래약정서	★★★★★	원본 보관	
거래명세서·납품확인서	★★★★★	원본 + 사본 / 외상잔액확인서 정기 수령 권장	
세금계산서	★★★★★	국세청 홈택스 출력	
문자·카카오톡 ("값겠다" 등)	★★★★	캡처 + 백업 보관	
내용증명 발송 기록	★★★★	우체국 영수증 보관	

4부 | 소송 비용 참고 — 인지대 비교

지급명령은 소송 인지대의 1/10만 납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청구금액	소송 인지대	지급명령 인지대	절감 효과
500만 원	약 45,000원	약 4,500원	약 40,500원 절감
1,000만 원	약 85,000원	약 8,500원	약 76,500원 절감
3,000만 원	약 245,000원	약 24,500원	약 220,500원 절감
5,000만 원	약 395,000원	약 39,500원	약 355,500원 절감

강제집행 절차 흐름



4부 | STEP 4 — 강제집행: 판결 후 실제로 돈 받기

판결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음. 집행문 부여 신청 →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 대상 : 토지·건물·농지
- 절차 : 강제경매 신청 → 감정 → 입찰 → 낙찰 → 배당
- 기간 : 6개월~1년 이상
- 팁 : 근저당권 미리 설정 시 선순위 배당 유리

예금 압류·추심

- 대상 : 상대방 은행 계좌
- 절차 :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 은행 송달 → 수령
- 기간 : 2~4주 (가장 빠른 방법)
- 팁 : 월급날·농산물 출하대금 입금일 직후 압류 효과적

채권 압류·추심 (매출채권)

- 예 : 마트에서 받을 납품대금 직접 수령
- 절차 :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 제3채무자에 송달
- 장점 : 통장에 돈 없어도 활용 가능
- 조건 : 제3채무자(마트 등)가 있어야 함

동산 압류 + 재산명시

- 동산 : 농기계·트럭·가축 등 (집행관 현장 방문)
- 재산명시 :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 (불응 시 감치)
- 재산조회 : 법원이 금융기관·국토부·국세청 등에 조회
- 예금·부동산·자동차·보험 등 한꺼번에 파악 가능

재산이 없으면 판결받아도 회수 어려움 → 처음부터 담보(근저당권)와 보증인을 받아두는 것이 핵심

4부 | 특수상황 ① — 거래처가 폐업·파산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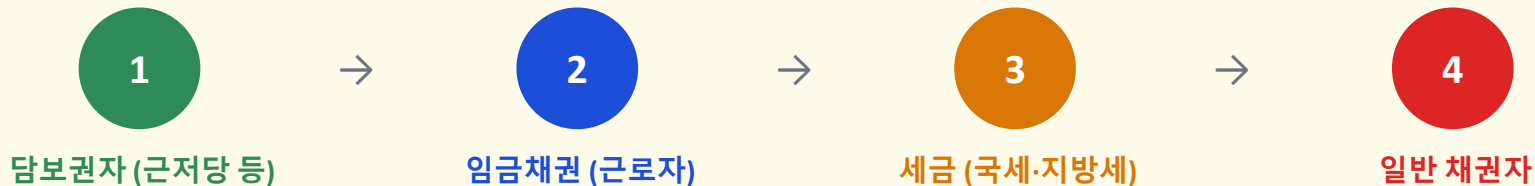
일반 폐업인 경우

- 개인사업자 : 대표자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 법인 : 법인 재산에만 강제집행 가능 (원칙)
- 대표자가 법인 재산을 빼돌린 경우
→ 법인격 부인론 적용 가능 (변호사 상담 필요)

파산 신청한 경우

- ① 파산법원에 채권자로 즉시 신고 (파산채권 신고)
- ② 신고 기한 엄수 — 기한 지나면 배당 제외
- ③ 근저당권 있으면 별도 경매 신청 가능
(담보권자는 파산절차와 별개로 권리 행사)

파산 시 배당 순서 — 일반 채권자는 거의 배당을 못 받음



4부 | 특수상황 ② — 재산 빼돌리기(사해행위) & 연대보증인 전략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 사해행위취소(詐害行爲取消)

사해행위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요건 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

요건 ②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

요건 ③ 수익자(받은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것 (악의)

효과 법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 → 넘긴 재산 원상복구 → 강제집행 가능

제소기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 전략적 활용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모두를 피고로 소송 제기
- 재산이 있는 쪽에 먼저 강제집행
-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채권자 무관)

핵심: 연대보증인은 누구에게든 즉시 청구 가능.
재산 있는 쪽부터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김새가 보이면?

즉시 ① 가압류 신청으로 재산을 먼저 동결하고, ② 사해행위의 증거(처분 전후 등기부등본, 이전 경위 등)를 확보

법적 조치 5계명

①

시효준수

농산물 대금은 3년, 상거래 채권은 5년. 시효 만료 전 반드시 조치 필요

②

가압류는 소송보다 먼저

소송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재산이 있다면 즉시 가압류

③

증거 철저 보관

계약서·거래명세서·문자·카카오톡 — 모든 것이 증거

④

담보 확보 최우선

근저당권이 있으면 경매에서 선순위 배당

⑤

법률전문가의 도움

금액이 크거나 복잡하면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

PART 5

실전 사례 & Q&A

농업 현장에서 실제 일어난 사례 분석

5부 | 실전 사례 분석 — 농업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거래처 부도로 인한 미수금

📌 상황: 농산물 외상 납품 → 거래처 갑자기 부도 → 미수금 3,000만 원

사례 1

✅ 핵심: 즉시 재산 파악 → 가압류 신청 → 본안 소송 제기 → 확정 판결문(집행권원)에 기한 경매 신청



품질 문제로 지급 거부

📌 상황: 쌀 납품 → 거래처 '품질이 나쁘다' → 대금 지급 거부

사례 2

✅ 핵심: 납품 시 검수확인서 확보 → 품질 반박 증거 수집 → 내용증명 → 본안 소 제기



소멸시효 임박

📌 상황: 3년 전 납품 대금 500만 원 미수령 → 시효 곧 만료 예정

사례 3

✅ 핵심: 즉시 내용증명 발송 (6개월 중단) + 동시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핵심 교훈: 사전 예방(계약서·담보·신용조사)이 사후 수습보다 훨씬 쉽고 저렴함



사례 4

카카오톡으로만 거래 – 계약서 없는 경우

상황: 카톡으로 거래 조건 합의 후 농산물 납품 → 거래처가 '계약한 적 없다'며 부인

결과: 카톡 대화 캡처 보관 → 납품 확인 메시지 저장 → 입금 내역과 함께 증거 제출 → 소송 승소

📌 핵심: 카톡도 법적 증거 가능. 거래 관련 대화는 절대 삭제 x



사례 5

연체이자를 몰라서 손해 본 경우

상황: 계약서에 연체이자 조항 없음 → 3년 뒤 받았는데 원금만 받음 → 이자 한 푼도 못 받음

결과: 법정이자(민법 연 5%, 상법 연 6%)만 청구 가능 → 계약서에 이자율 명시했다면 더 받을 수 있었음

📌 핵심: 계약서에 '연체이자 연 12%' 등 명확히 기재 필요



사례 6

보증인이 있어서 회수한 경우

상황: 거래처 자금난으로 대금 2,000만 원 미지급 → 거래처는 재산 없음

결과: 계약 시 연대보증인을 세워줬음 → 보증인에게 직접 청구 → 전액 회수

📌 핵심: 거래대금이 큰 거래엔 반드시 보증인 입보

5부 | 핵심 체크리스트 — 이것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

거래 전

- 상대방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계약서 작성 (외상거래약정서 포함)
- 납품 조건·대금 지급 기한 명시
- 담보 또는 보증인 확보 (고액 거래 시)
- 외상 한도 설정

거래 후

- 납품확인서·검수확인서 수령
- 세금계산서 발행
- 미수금 관리 대장 기록
- 대금 지급 기한 모니터링

미수금 발생 시

- 소멸시효 기산일 확인
- 증거 서류 확보
- 내용증명 발송
- 분할상환 합의서 수령 (협의 가능 시)
- 가압류 신청 (재산 있을 경우)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오늘 강의의 핵심 메시지

①

예방이 최선

계약서 작성, 담보 확보, 신용조사
→ 거래 전에 철저히 준비하세요

②

미수금은 즉시 관리

발생 즉시 내용증명 발송, 미수금 대장 기록
→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③

시효가 지나면 끝

물품대금 채권은 3년!
→ 시효 만료 전에 반드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